

제43호 1987년 1월 20일

물리치료회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우리 회를 아껴온 회원께 감사

부회장 황 현 고



평범한 물리치료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본 협회의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지면으로나마 회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되어 평소 생각했던 소견이나마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랜동안 지부 일을 맡아왔었고 협회 이사도 한 적이 있기에 협회 일을 어느정도 알고있지만 따지고보면 협회는 물론 회원들을 위해서 일해왔다고 생각되기에 직책이 바뀌었다고해서 크게 달라진 것도 실상 없다고 본다.

이제 새삼스럽게 협회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회원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정신나간이의 녀두리로 보겠다는 생각이들기에 이 글을 쓰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할지 마음이 편치않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물리치료사라는 천직에 자부하고 긍지를 갖고 각자 주어진 영역에서 충실히 일해왔고 우리의 실체이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협회의 한 회원으로서 뜻을 모아 키우고 같이 아꼈왔던 협회이기에 미력이나마 작은 일이라도 성의껏 조용히 회장님을 돕고 협회를 비판하기보다는 협회를 이해하고 조언하는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기도 하다.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본인도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물리치료사로서 자존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위 하지만 때로는 막연히 변화있는 삶 아니면 솔직히 내직업에 무슨 조그만 기적이라도 외주기를 바라온 것도 사실이다. 더 나은 인격대우와 보수 그리고 사회적, 직업적인 안정 외에 더 무슨 바램이 있을까마는 한편으론 나 자신이 더 부단한 노력과 희생의 기여없이 그냥 아까운 세월만 보냈다는 자책도 해본다.

옛날에 비하면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현저하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전국 요소요소애 많은 회원들이 진출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에 대한 대우는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인이야 어떻든 그래도 상당수 회원들이 본인 자신들의 부단한 노력과 성실로 직장이나 사회에서 예우를 잘 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음은 잘 알고 있다. 너무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근면하여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꾸준한 자기혁신이 있어야 우리의 권위와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여성회원들도 직장과 사회활동에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은 그래도 여성회원들에게는 이런 장애를 극복할수 있는 최적의 직업이 아닌가 한다. 우리 협회에서도 훌륭한 여성회원님들이 계시지만 협회의 대다수가 여성회원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잠깐들렀다 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직업이라 하니 할 수 없기에 좀더 적극적인 여성회원들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협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협회는 각 회원이 소속하고 있는 각 지부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회업무에 반영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원을 위하는 회가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각 지부가 잘 운영되고 활성화되면 결국 협회가 잘 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협회는 전보다 더 각 지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각 지부는 회원들이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회원을 위하는 실질적인 지부 소임을 다할 때 협회의 기능도 제대로 되리라 본다.

회원들께서도 각자가 속해있는 지부를 적극도와 참여함으로써 지부가 잘되어야 협회도 그만큼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되고 그 뒷바침을 회원들 스스로가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협회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단체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으나 협회는 협회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남겨놓고 있지만 일시에 전회원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방관할 수 없는것이 현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아직 타 협회에 비해 모든것이 빈약한 실정이다. 우리회의 일년 예산만 보더라도 타 협회에 비교하면 소꿉장난할만한 살림살이이다. 회원들 말대로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원들이 낸 회비가 자신과 협회를 위해 잘 쓰여지기를 바라며 또 직접 혜택이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보람을 느낄 것이다. 이 골치아프고 어려운 문제는 아마도 지부 일이나 협회임원을 맡아본 회원님들이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있는 회원님들은 잘 이해가 가리라 본다.

이제 우리도 회원 모두가 마음을 합해 힘을 모은다면 참으로 엄청난 힘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보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도 많기에 앞으로 우리 협회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협회를 돕는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과 다를리 없다. 예를 들면 협회의 얼굴이고 기관인 회보도 그러하다. 원고가 늘 미흡하여 내용과 품위가 일개 동문회보만도 못한데서야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전회원들께서 일년에 한 번만이라도 관심만 갖는다면 기사가 넘쳐 심사라도 한 후 게재해야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편지를 맡아 수고하는 우리 회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싶다. 아마 원고만 많이 들어오면 이 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 같다. 회보에 글을 쓰다보면 협회를 한 번쯤 생각하고 애착심을 갖게되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하는 소박한 기대도 해본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않다. 그동안 각 지부나 협회일로 수고하셨던 많은 분과 우리 회를 아껴온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바쁜 중에서도 자신과 우리가 속해있는 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글을 맺고싶다.

출산시의 통증 조절을 위한 경피신경자극

A Case Report : DONNA L. KEENAN, LINDA SIMONSEN, and DONALD J. MCCRANN

출산시의 통증 조절을 위한 경피신경 자극

TENS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좋은 결과를 가지면서 수술 후 통증과 여러 형태의 만성적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물리치료 문헌에서 분만하는 동안 TENS의 사용에 관한 몇 가지 보고서들이 있어왔다. 몇몇 유렵의 연구들은 산고와 해산과 연합된 통증의 감소에서 TENS가 좋은 효과를 나타냈음을 보고했다.

TENS는 비공격성의 무통성의 절차이며 산모나 태아쪽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양식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적절한것으로 보인다. 이런 case study에서 우리는 물리치료사와 다른 건강을 돌보는 사람들이 원안들을 발전시키고 이런 양식의 이용을 위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TENS가 한 환자에게 어떻게 이용되었나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한다.

Melzack와 Wall의 통증에 관한 gate control theory는 TENS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이런 가설에 따라 넓은, 구심성의 고속도 섬유질의 전기자극은 통증신호가 더높은 뇌중심부로 전달되는 것으로부터 저속도의 통증을 운반하는 A delta와 C 섬유질

들을 방해한다. Melzack의 이론에서 고주파(high frequency), 저강도(low intensity) TENS는 아픔에 반응하는 자극(nociceptive stimuli)이 척수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 Labor and delivery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단계는 경관(cervix)을 소멸시키고 확장시키고 통증을 수용하는 감각기관을 활성화시키는 자궁의 위축으로 시작한다. 유발된 충격들은 uterine, pelvic과 hypogastric plexes를 통해 중심부로 인도되는 섬유질(afferent fibers)에 의해 전달되며 T₁₀-L₁에서 dorsal roots를 통해 척수에 도달한다.

일단 경관(cervix)이 10cm로 완전히 확장되면 산고의 두 번째 단계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자궁의 수축과 자발적인 복부근육(abdominal muscle)의 수축은 vaginal canal을 통해 아기를 밀어낸다. 통증 수용기관(pain receptors)들이 vagina, pelvic floor vulva 그리고 perineum의 확장에 의해 활성화 된다. 유발된 충격들은 의음부의 신경들을 통해 afferent fibers에 의해 전달되며 dorsal roots S₂₋₄를 통해 척수에 전달된다. 산고의 세 번째 단계는 아기의 분만(delivery)과 태반이다.